

# 典經에 나타난 新元의 意味

- 傳敎와의 關聯性을 中心으로 -

高南植\*

## 目 次

- |                   |                   |
|-------------------|-------------------|
| I. 諸言             |                   |
| II. 傳敎            | 2. 五十年工夫 度數와 新元   |
| 1. 傳敎의 時間區分       | IV. 新元과 无極道 創道    |
| 2. 傳敎의 內容         | 1. 公事의 時間的 對象과 新元 |
| III. 五十年工夫 度數와 新元 | 2. 无極道 創道         |
| 1. 公事와 度數         | V. 結語             |

## I. 諸言

지구상에 인류가 최초로 존재한 이후로 인간들은 문명을 만들고 공동체를 구성해 오면서 삶을 영위해 왔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문화와 종교가 인류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기존의 문화와 종교는 새로운 문화나 종교와의 접맥 속에서 쇠퇴되기도 하고 발전되어 온 것이 섭리였다.

---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전개 과정속에서 우리는 선천에 있어 문명의 발전은 주기적으로 성쇠를 거듭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인류문명은 황제 헌원을 창시자로 해서 발전해 왔다고 보고 있다. 지금도 황제가 묻혔다고 전해지는 섬서성 황릉현에는 석비에 「軒轅廟」라는 글과 함께 「文明之祖」라는 비문이 세겨져 있다.

각 민족의 문명에 대해 『전경(典經)』은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고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고 적고있다. 여기에서 「문화의 정수를 걷고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다.」는 말은 새로운 문명의 장이 열림을 보인 것이다.

상제(上帝 ; 강증산, 1871~1909, 이하 『전경』의 호칭을 따라 상제로 칭함)로부터 종통을 계시로써 전수 받으신 도주(道主 ; 조정산, 1895~1958, 이하 『전경』의 호칭을 따라 도주로 칭함)는 후천 문명의 기초를 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利在新元 癸亥年」이라 하고 「傳教」를 발표했다.

傳教의 내용은 황제 헌원을 과거의 元을 세웠던 인물로 정하고 그로부터 내려오는 성인의 출현과 유교, 불교, 야소교의 시운에 따른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도주께서 밝힌 전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제의 공사와 도수 그리고 도주의 오십년 공부를 통해 신원이 제정된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傳教

### 1. 傳教의 時間區分

전교는 도주께서 1923년(계해년)에 발표한 글로 모두 9개의 원문과 그에 대한 부연 설명격인 9개의 按으로 이루어져있다.

#### 傳 教

#### 1. 七閏十九世爲章 二十七章是會當

按 間一年置閏則有餘日 間二年置閏則日不足 及至十九年 置七閏則無餘不足 故以十九爲一章

#### 2. 二十七章爲一會 一會凡五百十三年也 孟子所謂五百年必有王者興者 此也 三會爲統 三統爲元 循環往復互無疆

按 一會各五百十三年則 三會合一千五百三十九年也 一統各一千五百三十九年 則三統合四千六百十七年 是爲一元

#### 3. 四千六百十七年前丁巳 軒轅立極 肇斯元

按 黃帝距今四千六百十七年前丁巳(上元甲前計算)

#### 4. 萬像萬事 皆有是 諸法諸書 總此源

按 天文地理人事 皆黃帝之所始教而 史記記年 亦自黃帝始也

#### 5. 傳鬯項嚳助華禹 初統初會 世世聖

按 自黃帝室於舜禹 五百年矣 初統初會者 以黃帝爲始 則以黃帝元年計 以至於舜禹 五百十三年者也

#### 6. 日出萬暈同發明 春回品物共華盛 初統之中隆中季 聖不承承但一時

按 初統者 黃帝以後 凡一千五百三十九年之謂而 五百十三年以後則初統之中會也 一千二十六年以後則謂初統之計會也

#### 7. 禹後有湯湯後文 一會一聖應會期 中統由來世漸降 聖不道行但教傳

按 中統者黃帝即位 後千五百三十九年以後爲仲統也

8. 釋後有孔孔後耶 一會一教各門筵

按 釋迦如來距今二千九百五十年(癸亥年計)癸丑生 孔子距今二千四百七十四年庚戌生 耶蘇距今二千九百二十三年辛酉生

9. 季統教亦無肇聖 惟有述聖斷啓來

按 季統者黃帝即位 後三千七十八年以後之季統也 距今一千五百年前六朝及新羅之時佛道中興其後五百年距今略一千年前大宋之時濂洛諸賢一時傳道其後五百年以後羅馬法王以耶蘇教爲西洋之盟主  
佛梁儒宋耶羅馬 一教一昌應會回

위의 1~9까지 9개의 내용중 앞부분 1과 2, 두 부분은 시간의 단위에 관한 설명이며 뒤 3~9까지의 문장은 각 시기별 神聖들의 가르침과 종교의 변천을 보여주는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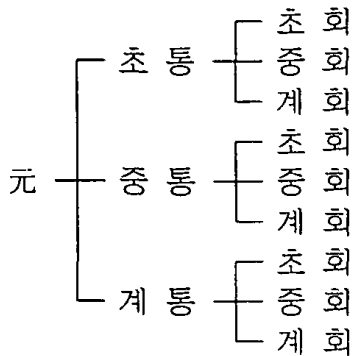
전교의 원문 1과 2를 볼 때 시간의 단위는 元·統·會·章의 네가지로서 각각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元 = 3統
- 1統 = 3會
- 1會 = 27章
- 1章 = 19年(7閏)<sup>1)</sup>

위의 관계에서 1元 을 초통, 중통, 계통으로 하고 1통을 초회, 중회, 계회로 보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七閏十九世爲章 二十七章是會當 三會爲統 三統爲元』(『典經』, 교운, 2장 26절)

(도표 1) 元·統·會의 관계



위의 元·統·會·章은 순환과 왕복이 강제성이 없이 돌아가며 상호관계를 연관지어 年으로 환산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

$$1元 = 3統 = 9會 = 243章(9 \times 27章) = 4617年(243 \times 19年)$$

$$1統 = 3會 = 81章(3 \times 27章) = 1539年(81 \times 19年)$$

$$1會 = 27章 = 513年(27 \times 19年)$$

$$1章 = 19年(7閏)^2)$$

元은 전교에서 구분한 가장 큰 시간의 단위이다. 전교에서 元을 가장 큰 시간의 단위로 설정해 각 시기별 특징을 따라 설명한 것은 元의 순환을 따라 새로운 文明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주께서는 1923년으로 마무리된 과거의 元을 연구하는 주선원과 주선원보를 두고<sup>3)</sup> 4617년 동안의 1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거의 1元을 정리하여 전교를 내린 것이다. 이것은 천도의 흐름을 맞춰 새로이 열리는 신원의 시기를 따라 후천의 새질서를 정립해나가기 위해서였다.<sup>4)</sup>

2) 『按 閏一年置閏則有餘日 閏二年置閏則日不足 及至十九年 置七閏則無餘 不足故以十九爲一章 二十七章爲一會 一會凡五百十三年也 孟子所爲五百年必有王者興者 此也』

按 一會各五百十三年則 三會合一千五百三十九年也 一統各一千五百三十九年 則三統合四千六百十七年 是爲一元』(앞의 책, 교운, 2장 26절)

3) 『도주께서 그후 周旋元과 周旋元補란 두 직책을 마련하고 전교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시니라.』(앞의 책, 교운, 2장 26절)

4) 『「금년이 利在新元 계해년이라」고 말씀을 마치고 전교를 내리시니라』(앞의 책, 교운, 2장 26절)

## 2. 傳敎의 內容

전교의 내용을 초통·중통·계통의 세 시기로 나눠 살펴본다.

### 1) 初 統

1923년 利在新元 이전의 元을 볼 때 元의 출발은 황제 軒轅씨로부터 시작되며<sup>5)</sup> 이 시기가 元의 시작이 된다. 전교는 만상만사가 황제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여러 법과 책이 모두 황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6)</sup>

이점은 황제의 업적과 당시의 생활상을 밝힌 『十八史略』에서 찾을 수 있다.

『黃帝軒轅氏 公孫姓 又曰姬姓 名 軒轅 有熊國 君小典 子也 母 見大電 繞北斗樞星 感而生帝 炎帝世衰 諸侯 相侵伐 軒轅 乃習用干戈 以征不享 諸侯 咸歸之 與炎帝 戰于阪泉之野 克之 蚩尤 作亂 其人 銅鐵額 能作大霧 軒轅 作指南車 與蚩尤 戰於涿鹿之野 禽之 遂代炎帝 爲天子 土德 王 以雲 紀官 爲雲師 以風后 爲相 力牧 爲將 受河圖 見日月星辰之象 始占 星官之書 命大撓 占斗建作甲子 容成 造曆 隸首 作算數 伶倫 造律呂 爲 文章 以表貴賤 作舟車 以濟不通 畫埜分州 得百里之國萬區 遠夷之國 莫 不入貢 帝崩 有子二十五人 其得姓者 十四』<sup>7)</sup>

또한 『전교』에는 사마천이 『史記』를 쓰며 나름대로 과거 역사의 기록을 황제 때로부터 적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sup>8)</sup>

### 2) 中 統

전교에는 중통의 시기가 성인을 말할 수 없으며 다만 성인의 가르침만이 전해 오다가 석가모니, 공자, 야소가 차례로 세상에 교를 전했던 시기로 나타난다.<sup>9)</sup> 이 시기는 황제가 왕위에 오른 후, 1539년이 지난 때이다.<sup>10)</sup>

5) 『四千六百七十年前丁巳 軒轅立極 肇斯元』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6) 『萬像萬事 皆有是 諸法諸書 總此源』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7) 신태삼, 『詳密註解 史略諺解一卷』, 세창서관, 1981, pp.5-6

8) 天文地理人事 皆黃帝之所始敎而 史記記年 亦自黃帝始也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9) 『中統由來世漸降 聖不道行但敎傳』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10) 『中統者黃帝卽位 後千五百三十九年以後爲仲統也』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중통의 초회의 시기는 1923년으로부터 2950년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나 가르침을 전했던 때가 된다.<sup>11)</sup> 중회에는 공자가 태어나 가르침을 펼친 시기이며<sup>12)</sup> 계회는 야소가 신유생으로 태어나 교를 전한 때이다.<sup>13)</sup>

요컨대 중통의 전체기간은 석가모니, 공자, 야소가 차례차례 각각 한 교를 내놓아 1회동안 그 사상을 펼친 시기였다.<sup>14)</sup>

### 3) 季 統

시간대로 봤을 때 계통은 황제 즉위 후 3078년 이후부터 1923년까지이다.<sup>15)</sup> 이 시기도 역시 교가 성인으로부터 유래되지 못한 때이다. 오직 구술에 의하여 교가 전해오고 성인이 단절된 채 시간이 흘러왔다.<sup>16)</sup>

계통의 초회 시기는 1923년으로부터 계산해서 1539년전부터 1026년전까지이다. 전교는 1923년으로부터 1천 오백년전은 중국 육조시대와 신라때로 불도가 중흥해 세상에 가르침을 펼쳤던 때라고 적고 있다.<sup>17)</sup>

다음으로 중국 육조시대와 신라시대로부터 오백년이 지나면 중국 송나라 시기가 나온다. 이 때에는 濂洛의 여러 현인들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시기동안 도를 전했던 기간이며 중회에 해당된다.<sup>18)</sup>

一元을 통해볼 때 9개의 회 중에 마지막 會인 계통의 계회기간에는 서양 라마법왕이 야소교를 기반으로 서양의 맹주역할을 했던 시기가 된다.<sup>19)</sup>

결론적으로 계통의 시기는 불은 양나라, 유는 송나라, 야소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현창했던 때로서 하나의 교가 한 번 창성하는데 회의 주기를 따라 응한 것이 된다.<sup>20)</sup>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1) 『釋迦如來距今二千九百五十年(癸亥年計)癸丑生』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 12) 『孔子距今二千四百七十四年庚戌生』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 13) 『耶蘇距今二千九百二十三年辛酉生』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 14) 『釋後有孔 孔後耶 一會一教各門筵』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 15) 『季統者黃帝卽位 後三千七十八年以後之季統也』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 16) 『季統教亦無肇聖 惟有述聖斷啓來』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 17) 『距今一千五百年前 六朝及新羅之時 佛道中興』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 18) 『其後五百年 距今略一千年前 大宋之時 濂洛諸賢一時傳道』(앞의 책, 교운, 2장 26절)
- 19) 『其後五百年以後 羅馬法王 以耶蘇教 爲西洋之盟主』(앞의 책, 교운, 2장 26절)
- 20) 『佛梁 儒宋 耶羅馬 一教一昌 應會回』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도표 2) 1923년 利在新元 이전의 元정리

기		간	내	용
一 元 (4617년)	初 統 (1539년)	初 會 (513년)	황제 현원입극 정사년(丁巳年) 초통초회 세세성(初統初會 世世聖) 이때에는 대대로 성인이 전해졌다.	
		中 會 (513년)	일회일성 응회기(一會一聖 應會期) 이때는 성인은 계승되지 않고 한 회에 한 성인이 있었다.	
		季 會 (513년)	하, 은, 주나라 문왕에 이르는 시기이후	
	中 統 (1539년)	初 會 (513년)	석가의 가르침이 전해지던 시기	
		中 會 (513년)	공자의 가르침이 전해지던 시기	
		季 會 (513년)	야소의 가르침이 전해지던 시기	
	季 統 (1539년)	初 會 (513년)	육조와 신라 시대. 불도중흥시기	
		中 會 (513년)	염락제현(濂洛諸賢)이 전도하던 시기	
		季 會 (513년)	라마법왕(羅馬法王)이 야소교의 맹주로 있었던 시기	



### Ⅲ. 五十年工夫 度數와 新元

#### 1. 公事와 度數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행하며 선포하신 내용을 보면 천지를 도수에 따라 조정하여 상극을 상생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典經』, 공사, 1장 3절) 21)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다』(예시 6절)

『전경』에 나타나는 도수 관련구절을 정리하면 도표4 (논문 뒷면 참조)<sup>22)</sup>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도수의 조정은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예시 73절)

에서 볼 수 있듯, 神道를 조화해 진행된다.<sup>23)</sup>

인간도 신명이 그 몸속을 드나들게하여 고쳐쓰며 삼계개조를 위해 모든

21) 이하 인용은 『典經』을 참조하였음

22) (도표4)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음 【부록】 참조.

23)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 (앞의 책, 예시 9절)

것에 운을 붙여 쓰게 된다.<sup>24)</sup>

도수의 조정이 신도(神道)를 따라 있게되는 이유는 동서양의 교류가 빈번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해져서이다.

『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73절)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습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13절)

위 내용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유·불·선의 법만으로 도수의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신도를 기틀로 혼란을 바로잡아 후천의 새 질서를 세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文化의 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샐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예시 12절)

『김 광찬과 신 원일이 상제를 모시고 계시던 정미년 정월 어느날 상제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하시면서 벽에 글을 다음과 같이 써 붙이셨도다』  
(교운 1장 19절)

『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공사 3장 40절)

24) 『그리하여 상제께서 이 세상에 탄강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서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운을 붙여 쓰기로 하셨도다. 이것은 삼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다』(앞의 책, 예시 7절)

『萬物資生 羞耻放蕩 神道統 春之氣放也 夏之氣蕩也 秋之氣神也 統以氣之主張者也 知心大道術』(교운 1장 44절)

라고 하셨으며 천지공사에 신명을 불러 일을 처결했다.<sup>25)</sup>

신도에 따라 도수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착란이 있던 기존의 신계를 바로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상제께서는 신계에 있는 명부를

『상제께서 가라사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부터 상제께서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시고는 그것을 불사르셨도다』  
(공사 1장 5절)

라는 내용처럼 바로 잡았다. 그리고 명부의 상극도수도 뜯어 고쳐 주장자를 아래와 같이 바꾸었다.

『상제께서 김 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朝鮮冥府를 全 明淑으로, 淸國冥府를 金 一夫로, 日本冥府를 崔 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불사르셨도다』  
(공사 1장 7절)

이처럼 정해진 신도를 따라 운수가 정해지고, 정해진 운수는 도수가 되는 대로 열리게 된다.

## 2. 五十年工夫 度數와 新元

상제의 천지 공사는 신도를 근본으로 도수를 따라 진행되어짐을 살펴봤다. 이러한 뜻을 맞춰 상제로부터 종통을 전수받았던 도주도 역시 도수를 따라 포교 공부를 한다.

25) 『상제께서 계묘년 정월에 날마다 백지 두 서너장에 글을 쓰거나 또는 그림(符)을 그려 손이나 무우에 먹물을 묻혀 그것들에 찍고 불사르셨도다. 그 뜻을 종도들이 여쭙어 물으니 「그것은 천지공사에 신명을 부르는 부호이노라」고 알려주셨도다』 (앞의 책, 공사, 1장 10절)

상제께서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동안 천지공사를 역사하셨다. 그리고 1909년 천지공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글을 선포하셨다.

『상제께서 六月 어느날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포교 오십년 공부종필(布教五十年工夫終畢)」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윤(伊尹)이 오십이 지 사십 구년지비(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를 깨닫고 성탕(成湯)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샴 틈 없이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37절)

이것은 50년동안의 공부로 포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경』을 통해 이 「50년 공부」가 도주에 의해 완수됨을 보자.

상제께서 화천하던 1909년에 도주는 구천상제의 포교 50년 공부 종필의 공사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sup>26)</sup> 「50년 공부」를 시작한다.

이로부터 9년 후인 1917년 도주께서는 삼계 대순의 진리를 감오득도한다.<sup>27)</sup> 그것은 상제로부터 계시를 통해 시천주 주문을 받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전경』은 적고있다.

『도주께서 어느날 공부실에서 공부에 전력을 다하시던 중 한 신인이 나타나 글이 쓰인 종이를 보이며 「이것을 외우면 구세 제민(救世濟民) 하리라.」고 말씀하시기에 도주께서 예(禮)를 갖추려 하시니 그 신인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글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 금지 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었던다.』(교운 2장 7절)

감오득도 후, 도주의 공부와 상제의 공사와의 관련성을 『전경』에 나타나는 몇가지 예를 따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상제께서 화천한 후 도주가 「50년 공부」를 했으며 그것이 천지공사의 도수를 도주께서 풀어나간 것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제의 공사와 도주의 공부의 연관성은 마하사에서 도주께서 도수를

26) 『도주께서 기유년(十五歲時) 四월 二十八일에 부친과 함께 고국을 떠나 이국땅인 만주에 가셨도다.』(앞의 책, 교운, 2장 4절)

27) 『도주께서는 九년의 공부 끝인 정사년에 상제의 삼계 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 하시도다.』(앞의 책, 교운, 2장 6절)

마치고 발표한 글에서 나타난다.

『도주께서 마하사에서 도수를 마치고 도장에 돌아오시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느니라. 도주께서 그 자리에서 「小年才氣拔天摩 手把龍泉幾歲磨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伏 道人何事多佛歌」의 상제의 글귀를 외우시고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 노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2장 48절)

이 구절에서 도주께서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 나가노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윗 글은 상제께서 김송환에게 외워주신 詩인

『小年才氣拔天摩 手把龍泉幾歲磨 石上梧桐知發響 音中律呂有餘和 口傳三代詩書教 文起春秋道德波 皮幣已成賢士價 賈生何事怨長沙』  
(행록 4장 5절)

의 두 구절 『小年才氣拔天摩 手把龍泉幾歲磨』과 내장산에서 말씀하신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伏 道人何事多佛歌』  
(행록 2장 5절)

의 내용이 합쳐진 것이다.

내용적으로 볼 때, 상제께서는 내장산에 가셔서 도인들이 불가를 많이 부르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셨다. 그리고 도주께서는 마하사 도수를 마치고 상제께서 내장산에서 밝히신 글귀를 외우셨다.

그런데 마하사에서 도주께서 하신 공부는 다음과 같다.

『도주께서 기축년 겨울에 동래 마하사의 방 한칸에서 정화수 스물네 그릇을 받들고 사십 구일을 한 도수로 정하시고 공부를 하셨도다. 이광석이 대웅전에서 도주를 위해 발원 염불을 올리니라. 사십 구일이 거의 될 무렵에 도주께서 승녀와 시종자에게 「법당의 불상을 자세히 보았느냐」고 물으시므로 그들이 달려가 보니 불상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도다. 도주께서 사십 구일을 다 채우신 새벽에 공부실 위에 학이 울며 날아가고 시종자에게 그 동안 모아놓은 글씨 종이를 태우고 그 재를 시냇물에 띄우라고 이르시므로 시종자가 그대로 하니 시냇물에 무지개가

서는도다』(교운 2장 47절)

윗글에서 볼 수 있듯이 마하사의 도수공부는 도주의 공부로 법당의 불상이 고개를 숙였던 공부였다. 도주께서 마하사에서 49일을 한 도수로 공부를 하고 상제께서 내장산에서 말씀하신 『도인들이 불가를 많이 해 안타깝다.』는 내용을 다시 언급하신 것은 도주의 공부로서 내장산에서 상제께서 보신 공사가 풀어져 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상제의 도수에 따른 선천 상극의 상생의 도로의 환원과 「50년 공부」에 따른 도주의 도수 공부속에서 布敎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그리고 도주가 감오득도한 후,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따라 공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도표3)과 같다.

도수에 의한 공부는 (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일도수, 복현무도수, 둔도수, 단도수, 폐백도수, 해원공부, 담뱃대도수, 황극신도수 등으로 나타난다.

도수와 관련된 상제와 도주의 연관성의 예를 하나 더 보기로 한다. 앞서서도 인용했듯이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마치고

『상제께서 六月 어느날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포교 오십년 공부종필(布敎五十年工夫終畢)」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윤(伊尹)이 오십이 지, 사십 구년지비(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를 깨닫고 성탕(成湯)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샴틈 없이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맞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37절)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천지공사를 마친 후에도 50년 동안 포교 공부의 도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제께서는

『상제께서 어느날 류찬명과 김자현 두 종도를 앞세우고 각각 십만인에게 포덕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현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 하라. 치천하는 오십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여섯명씩 포덕하라.」고 이르시고 또 「내가 태을주(太乙呪)와 운장주(雲長呪)를 벌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병욱의 액을 태을주로

풀고  
(도표 3) 도수내용 정리

번호	도수이름	내 용	전경 (교운편 2장)
1	백일도수	대원사에서 행하여졌다. 이곳은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하신 장소이기도 하다. 도주께서 이 백일도수 공부를 하신 것은 그때까지도 천지신명이 응기되어 있는 것을 풀기 위함이었다.	21절
2	북현무도수	문공신등이 상제의 성골과 약간의 금품을 훔쳐감으로써 비롯된다. 이를 금전으로 풀어야 하기에 도주께 미리 소액의 금품을 준비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24절
3	둔도수	도주께서 밀양 종남산 세천동에서 석달동안 행하셨다. 이 둔도수의 시점은 20절의 둔계가 도난당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둔도수의 둔자와 둔계의 둔자가 같은 둔(遁)자이기 때문이다.	20절 29절
4	단도수	도주께서 단도수를 행하심 귀절은 각각 27절, 28절, 29절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27절과 28절은 단도수라는 기록이 있으나 29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을 단도수로 분류한 것은 진인보두법에 근거한 것이다. 왜냐하면 「단도수를 행하시니 이것이 곧 진인 보두법이니라」하신 말씀에 따라서 29절의 보두법을 진인보두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7절 28절 29절
5	폐백도수	밀양 종남산 영성정에서 시작하여 다섯달동안 계속되어 함안 반구정에서 종결된다.	30절
6	담뱃대도수	도주께서 담배통과 물부리에 태극의 그림을 그려 나누어 주신다. 이는 태극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8절
7	황극신도수	도주의 명에 따라 도전님께서 청주 근방에 있는 만동묘를 찾음	49절 50절

장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3장 31절)

라고 하시어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한 평천하 후에 치천하 50년 공부의 운이 도래함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도주는 화천을 하며 상제께서 말씀하신 포교오십년공부종필과 치천하오십년공부에 따라 도수를 마쳤음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도주께서 정유년 十一月 二十一 자시부터 무술년 三月 三일까지 도장에서 불면 불휴하고 백일 도수를 마치시니라. 五일에 심히 괴로워 하시므로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왔으되 「때가 늦었도다.」고 이르시니라.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 밖에 시립케 한 수 도전 박한경을 가까이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말도록 분부를 내리고 「오십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세 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무술년 三月 六일 미시요. 양력으로 一九五八年 四月 二十四일이요. 수는 六十四세로다.』(교운 2장 66절)

곧 도주께서는 상제께서 말씀하신 포교 50년 공부 종필의 공사에 맞춰 1909년부터 시작된 50년 공부 도수를 1958년 마치시고 화천하시며 「오십년 공부 종필이 금년이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상제의 공사의 도수를 맞춰 모든 공부를 하셨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상제의 공사에 따른 위와 같은 도수 공부외의 예로 도주께서는 상제의 신격위<sup>28)</sup> 중, 뇌성보화천존상제의 뜻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는데 이것은 도주가 상제의 신계위상을 밝힌 것으로 상제께서 화천직전 언급하신 50년 공부의 실행자로서의 도주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볼 수 있다.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놓고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데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느니

28)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앞의 책, 교운, 2장 32절)



라.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 진인(海島眞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다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 나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십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보화천존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 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2장 55절)

그리고 도주에 의한 「利在新元」의 선포는 도주의 50년간 공부 도수 기간 중 1923년에 있었던 것으로<sup>29)</sup> 상제의 50년 공부 도수 공사를 근간으로 도주에 의해 시간적 도수를 따라 제정된 일이었다.

더 나아가 선천 기간중 황제로부터 야소교까지의 신성의 가르침과 주요 종교의 변천을 정리해 적고 있는 전교를 「利在新元」과 함께 도주가 발표한 것은 新元이 상제의 천지 공사속에서 개혁을 통해 앞으로 열릴 후천 선경의 새로운 진리를 세우기 위한 전초적 작업으로 시운에 맞춰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50년 공부 과정중 신원이 제정된 하나의 의미이다.

29) 『도주께서 그후 주선원(周旋元)과 주선원보(周旋元補)란 두 직책을 마련하고 전교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시니라. 이해 유월 치성일 전날에 밀양의 이우형, 김용국, 최창근, 안병문 그리고 부산의 박민곤과 안동의 권태로와 의성의 조원규와 예천의 이종창, 신용흠 그리고 봉화의 박봉래, 김천의 김규옥과 풍기의 조진명과 청도의 장득원 외 여러 사람들이 회문리에 모인 자리에서 도주께서 「금년이 利在新元 계해년이라」고 말씀을 마치고 전교를 내리시니라.」(앞의 책, 교운, 2장 26절)

## IV. 新元과 无極道 創道

### 1. 公事の 時間的 對象과 新元

신원과 함께 발표된 전교는 황제로부터 야소교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교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기간은 선천 개벽이후의 역사이다. 상제의 천지 공사는 선천 시대의 상극에 의한 만고의 원한을 풀고 시운적 흐름속에서 도수에 맞춰 개벽을 시켜 후천 선경을 만드는 일이었다. 앞에서 신원이 1923년이라는 시간성과 관련을 맺고 선포되었음을 보았다.(II장의 전교내용 참조) 소강절등 몇몇 학자들의 설이 있지만 선천 시점을 정확히 잡을 수 없는 상황속에서 본고는 『전경』을 바탕으로 상제께서 언급하신 인물들을 중심으로 상제 천지 공사의 시간적 대상을 보기로 한다.

천황, 지황, 인황은 선천 개벽이후 세상을 다스렸던 존재로 상제께서는 전북 김제 모악산 금산사에 가서 자신이 30년동안 계셨던 미륵금불에 대해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 대금산(天下之大金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 금불(六丈金佛)이 화위 전녀(化爲全女)이라  
만국 활계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花三千國)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예시 14절)

라고 하셨습니다. 윗글은 천황, 지황, 인황으로부터 상제의 강세 이전까지의 시간의 흐름속에서 인류 역사속에 발생됐던 모든 문제를 천지공사를 통해 해결하고 상제께서 개벽을 통해<sup>30)</sup> 『文明開花三千國 道術運通九萬里』의 후천

30)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하시던 신축(辛丑)년 겨울에 창문에 종이를 바르지 않고 부엌에 불을 지피지 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전폐하고 아흐레동안 천지 공사를 시작하셨도다. 이 동안에 뜰에 버를 말려도 새가 날아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집 앞으로 통행하기를 어려워 하였도다』(앞의 책, 공사, 1장 1절)

선경을 연다는 내용이다.

『전경』에는 先天 개벽이후 시간의 흐름을 따라 등장했던 神聖들로 천황, 지황, 인황, 태호 복희, 신농, 황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복희에 대해서는 내장산에 가셔서 지으신 한시에서 상제께서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伏 道人何事多佛歌』  
(행록 2장 5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제께서 당시 상황에서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조종으로 삼아야 될 존재가 태호복인데 그렇지 못하고 불가를 많이 찾는 현실을 안타까와 하신 내용이다.

신농씨에 대해서는 해원의 때를 당해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전한 일에 대해 보은을 해야될 존재로 나타난다.<sup>31)</sup>

또한 황제는 창업 군주<sup>32)</sup>로 치우의 난<sup>33)</sup>을 정벌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

『상제께서 이듬해 四월에 김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석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  
(앞의 책, 공사, 1장 2절)

『상제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하노라.』  
(앞의 책, 예시 17절)

31) 『신농씨(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되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에 신농 유업(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 강태공(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자가 있되 그 공덕을 앙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방아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강태공 조작(庚申年庚申月庚申日姜太公造作)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고 하셨도다.』  
(앞의 책, 예시 22절)

32) 『하루는 종도들이 상제의 말씀을 좇아 역대의 만고 명장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데 경석이 상제께 「창업군주도 명장이라 하오리까」고 여쭙니 상제께서 「그러하니라」 말씀하시니라. 경석이 황제(黃帝)로부터 탕무(湯武)·태공(太公)·한고조(漢高祖) 등을 차례로 열거하고 끝으로 천명숙을 써서 상제께 올리니 상제께서

1923년에 발표된 전교에서는 元의 시초에 왕위에 오른 인물이 황제이다.<sup>34)</sup>

이밖에 선천 개벽이후 황제로부터 1923년 利在新元전까지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주기적으로 도수에 따라 신성들과 종교적 가르침을 내 놓았던 분들이 인류에게 정치를 펴고 교화를 했음은 이미 앞장 전교의 내용을 통해 살펴 보았다.<sup>35)</sup>

이상의 『전경』에 등장하는 역사상 인물들을 중심으로 볼 때 상제의 천지공사는 기간상으로 일단은 天皇, 地皇, 人皇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을 시운에 맞춰 개벽을 통해 고쳐 후천 선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선천 개벽으로부터 후천이 열리기 전의 문제<sup>36)</sup>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음 구절은 천지공사의 시간적 대상을 잘 보여준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

그에게 「전명숙을 끝에 돌린 것은 어찌된 일이뇨」 물으시니 경석이 「글을 왼쪽부터 보시면 전명숙이 수위가 되나이다」고 답하였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시인하시고 종도들을 향하여 「전명숙은 만고 명장이라. 백의 한사로 일어나서 능히 천하를 움직였도다」고 일러 주셨다. (앞의 책, 공사, 1장 34절)

33) 『난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는 사람이 있나니 치우(蚩尤)가 작란하여 큰 안개를 지었으므로 황제(黃帝)가指南車(指南車)로써 치난하였도다. 난을 짓는 자나 난을 다스리는 자나 모두 조화롭다. 그러므로 최제우(崔濟愚)는 작란한 사람이요. 나는 치란하는 사람이니라. 전명숙은 천하에 난을 동케 하였느니라」

(앞의 책, 교법, 3장 30절)

34) 『四千六百七十年前丁巳 軒轅立極 肇斯元』 (앞의 책, 교운, 2장 26절)

35) (도표 2) 참조

36)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수만 높이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良)·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겹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법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 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겹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앞의 책, 공사, 1장 35절)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30절)

위 내용은 시운적으로 하늘과 땅이 성공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앞서 있었던 선천을 열었던 개벽 이후로 시간이 흘러 이제 상제의 천지 공사의 도수를 따라 후천이 열리는 개벽이 일어나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위에서 공사의 시간적 대상과 시운적 필요성을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면 공사와 관련해 신원이 제정된 의미를 선천 시대 황제로부터 야소교까지의 신성의 가르침과 주요 종교의 변천을 담고 있는 「전교」의 내용속에서 보기로 한다.

상제의 강제는 신성, 불, 보살들의 하소연으로 이루어졌다.<sup>37)</sup> 상제께서는 신성, 불, 보살들의 하소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상제께서 어느날 김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李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드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

37) 『상제께서 九천에 계시자 신성, 불, 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면서 최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도 정하셨도다』 (앞의 책, 예시 1절)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앞의 책, 교운, 1장 9절)

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  
 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교운 1장 9절)

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마두가 동양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옮겨  
 가 열었던 서양 문명이 물질에 치우쳐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려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짐으로써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신성, 불, 보살들의 하소연으로 삼제님께서 강제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여기에서 이마두가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가 문운을 연 시기를 보면  
 이마두가 1610년에 죽었으므로 17C초가 된다. 17C초부터 열린 서양의 문  
 명 발달이 어느 시점에 가서 앞의 『전경』 교운 1장 9절에서 지적했던 『인류  
 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  
 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와 같은 일을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단 거시적으로 신성, 불, 보살이 하소  
 연했던 시기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당연히 이마두가 죽은 해인 1610년 이  
 후부터 삼제님 강세의 해인 1871년 사이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전교」의 내용으로 볼 때 계통의 계획  
 부분이다. 계통의 계획 시기는 라마법왕(羅馬法王)이 야소교(耶蘇敎)로서  
 서양의 맹주가 된 때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利在新元을 하기 전의 元이 마무리 된다고 했을 때 그후  
 의 세상의 질서는 누가 어떤 가르침으로 제도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하지 않  
 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야소교가 동서양에 널리 전파되어 교세를 펴고 있을 때 함께  
 발달되던 서양 물질 문명은 교운 1장 9절의 내용에서 나타나듯 인류 역사에  
 심각한 폐단을 야기시켜 天地人 삼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통 계획의 기간에 응해 일어났던 야소교의 창성도 서양 물질  
 문명의 폐단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운적으로 삼계가 혼란해 도의 근원이 끊어지던 시기에 신성, 불, 보살의 하소연으로 상제의 강세는 이루어졌으며 상제의 강세(1871년)와 천지 공사(1901년~1909년)를 통해 新元이전의 元이 마무리되고 新元(1923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신도로 정해진 도수를 따라 새로운 가르침이 인류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곧 상제께서는 신성, 불, 보살의 하소연으로 강세하시어 전교상으로 봤을 때 계통 계획시기인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간 천지 공사를 행하시어, 인류와 신명계를 광구천하하시고 후천 선경의 진리를 선포했으며 도주의 50년 공부과정에서 1923년 新元의 시기를 맞춰 새로운 후천선경의 질서를 여는 도수 조정공사를 보셨던 것이다.

## 2. 无極道 創道

신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원으로 전교가 나온 이후의 새로운 종교적 교리의 태동에 대해 살펴봐야한다.

利在新元은 1923년 계해년에 발표되었다. 황제가 1923년으로부터 4617년 전 元의 시초에 문명의 시조가 되어 천하에 만상만법과 제법제서를 전했던 이후로 4617년이 흘러 한 元이 마무리 되고 新元이 제정돼 새로운 진리가 전해짐을 알 수 있다.

신원이 1923년(계해년)에 발표된 후로 새 元을 따라 출현된 새로운 진리는 1925년(을축년) 창도된 무극도였다.<sup>38)</sup> 도주는 무극도를 창도하고 신성, 불, 보살의 하소연으로 강세하여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간 천지공사하신 강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신앙의 대상으로 정하고 종지·신조·목적·각도문 등을 발표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무극도 창도는 50년 공부 도수상에서 연차적으로 정해진 도수를 따라 1923년 利在新元을 통해 선천 개벽후 황제 시대

38)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 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 때 도주께서 무극도(无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 상제(九天應元雷聲 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 (교운 2장 32절)

로부터 계해년(1923년)까지의 4617년(1元)동안의 인류 종교사의 일단락을 마무리하는 선행적 과정을 거쳐 2년후인 1925년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상제의 강세와 공사가 신성, 불, 보살의 하소연으로 이루어졌지만 시운적으로 포교오십년공부종필을 따라 1923년에 새로이 시작될 元과 新元을 제정할 시기에 출현될 치천하의 진리, 무극대운의 천지공정인 무극도 출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이것은 황제부터 야소교까지의 종교사를 정리한 전교와 함께 선포된 신원이 상제의 공사와 도주의 포교 50년 공부도수 과정에서 볼 때 무극도 출현의 전초 작업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먼저 신원 제정이 있는 후 시운적으로 새 진리인 무극도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무극도는 포교 50년 공부를 하던 도주가 상제의 강세의 목적을 근본으로 세워진 종단으로

무극도의 종지는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

이며, 신조는

사강령(四綱領) -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  
삼요체(三要諦) - 성(誠), 경(敬), 신(信)

이고, 목적은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 신선 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 천국 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개벽(世界開闢)

이었다. 이와같은 무극도의 종지·신조·목적은 元을 새로이 정하고 후천 선경에서 인류가 지표로 삼을 법이며 강론으로 제시된 것이다.

또한 무극도는 무극대운의 운도수를 맞춰 창도되었다. 전경에

『상제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



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주어 신명의 회산과 청령(聽令)을 참관케 하셨도다.』(예시 17절)

라고 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상제께서는 시운에 따라 앞으로 무극대운이 열리니 천지공정에 참여하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무극대운은 무극의 큰 기운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50년 공부속에서 도주는 1925년 도명을 무극도로 정하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안한 후, 새로운 진리를 창도하게 된다.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교운 2장 32절)

무극도에서 정한 신앙의 대상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였다는 것은 무극도의 종지·신조·목적이 그 연원을 구천상제에 두고 나오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상제의 공사의 취지를 근본으로 해 무극도가 창도됨을 말해준다. 무극도 창도와 함께 같은 해 발표된 도를 깨닫는 글인 「각도문」도 상제의 공사와 무극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 覺道文

夫聖人之經典 不求文章之色彩而求其眞理 眞人之心 求其實而不求外飾 求其物之事理 則求其天然而不求造作也 故聖人明心達道而不求聞達 書不求文章之色彩 衣不求綾羅也 求於文章者 聖人之心法 難得 求好外飾者 聖人之眞實 難得 大哉聖人之道德 元亨利貞大經大法 道正天地 數定千法 而理定心法 正大光明 仙佛儒大道正通 是以 天命代語先後 天道理氣生 大矣至矣聖矣 惟我奉教後學 以光大道 以承大德 以弘大業 清華五萬年龍華仙境 一一同躋之地千萬幸甚焉 (교운 2장 33절)

이글에서 도주는 각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성인의 경전에서는 진리를 찾아야 하며, 진인의 마음은 실상을 구했고, 우리가 사물의 사리에서 찾을 것은 천연이라는 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인의 심법과 진실을 찾기 어려우나 성인도덕은 원형이정의 대경 대법이라 하였다. 또한 도주는 후학을 가르쳐 大道를 밝히고 大德을 이어 大業을 넓힌다 하였다. 끝으로 청화 오만년 용화세계에 한걸음 한걸음 같이 갔으면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각도문은 신원이후 발표된 무극도의 종지·신조·목적 등과 함께 무극도를 믿고 깨닫는데 있어서의 본질적인 면과 무극도의 목적이 상제께서 공사로써 만드신 후천 선경에 함께 가고자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도의 본질을 찾아 청화 오만년 세계로 동귀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청화오만년 세계는 상제가 만든 후천선경이다. 상제의 도에 대한 깨달음을 여는 것이 공사와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으로 무극도가 상제가 미리 언급하신 내용을 따라 신원 제정이후 출현됨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결국 도주는 상제의 뜻을 받들어 무극도를 창도했으며 그것은 또한 공사의 도수를 따라 신원을 제정한 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원의 제정은 전교의 내용을 볼 때 상제의 천지 공사를 통한 새로운 진리 출현의 당위성을 시간적 주기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며 그 진리는 상제님의 신격위를 신앙의 대상으로 밝히시고 종지·신조·목적과 각도문을 선포하신 도주에 의해 무극도 창도로 출현됨을 밝혀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상제의 공사를 인세에 펴는 포교에 있어 도수를 맞춰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시간대인 元의 새로운 시작에 이어 오만년 후천 세계에 펼쳐질 진리로서 시운을 맞춰 무극도는 창도된 것이었다.

## V. 結語

본고는 典經 教運 2章에 나오는 傳敎의 내용을 중심으로 新元이 제정된 의미를 상제의 천지 공사와 도주의 50년 공부속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는 도주의 공부가 상제의 천지 공사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新元이 제정된 이유도 시운을 따라 도수에 맞춰 무극도 창도의 전초 과정으로 있었음을 말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전교의 구성과 그 내용을 알아보고 신원 제정의 의의를 찾아 보았다. 또한 3장에서는 상제의 천지 공사가 도수를 따라 이루어졌음을 고찰하고 신원이 50년 공부 과정속에서 시운을 따라 발표됨을 전교의 내용을 인용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상제의 천지 공사가 전교의 계통 계획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포교를 위한 50년 공부에서 신원의 제정과 전교의 발표는 무극도 창도를 위한 도수적, 시운적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전교는 선천 4617년간의 신성의 가르침과 종교의 흐름을 사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진리 출현의 시운적 당연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신원의 의미는 무극도 창도로 상제 천지 공사의 50년 공부 도수를 이루었다는데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索引集』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8
- 高南植, 「선천현실에 대한 천지 공사론」 『대순논집』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 신태삼, 『詳密註解 史略諺解一卷』 세창서관, 1981
- 諸橋轍次, 『大漢和辭典』大修館書店, 198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응진출판사, 1992
- 정범진 編著, 『大學 論語 孟子 中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5

## 【부 록】

(도표 4) 典經소재 度數 관련 구절

\* 행록 \*

장	절	내 용
3	53	백의군왕 백의장군의 도수
	54	백의군왕 백의장군의 도수
	65	독조사 도수
4	15	농담 한마디라도 도수에 박혀
	29	천지공사의 도수

\* 공사 \*

장	절	내 용
1	3	천지의 도수
2	3	丹朱의 해원도수
	16	후천에서의 음양도수
		정음 정양의 도수
文王의 도수 伊尹의 도수		
17	음양도수	
3	5	천지의 도수를 조정
	6	海王의 도수
	11	북도수
	17	秦始皇의 해원도수
	18	이레를 한 도수
	33	무당도수
37	도수를 써서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 교운 \*

장	절	내 용
2	11	後天 五만년의 도수
	14	천지도수의 조화단계 도수
	20	도수에 쓰였으면
	21	백일도수
	24	남월도수 北玄武도수
	25	둔도수
	27	단도수
	28	단도수
	29	둔도수
	38	담뱃대 도수
	43	도수의 의한 공부
	44	도수
	46	도수가 바뀌지리라
	47	사십 구일을 한 도수
	48	마하사에서 도수를 마치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노라
66	백일 도수	

\* 교법 \*

장	절	내 용
2	55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
3	4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
	34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下 克上의 일

\* 권지 \*

장	절	내 용
1	21	선천의 모든 도수

\* 제생 \*

장	절	내 용
	35	독조사 도수

\* 예시 \*

장	절	내 용
	6	선천의 도수
	9	천지도수
	10	명부에서의 상극도수
	12	물 샅 틈없이 도수
	16	도수로써 하늘도 뜯어고치고
	19	문수 보살의 도수
	24	사십 구일을 한 도수
	31	璿璣玉衡 도수 저울 갈고리 도수 추도수 끈도수 日月大御命度數 天地大八門度數
	53	이십 칠년동안 헛도수
	54	헛도수
	73	제 도수